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사야 10장 12-21절

로마서 8장 1-11절

요한복음 7장 25-36절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3월 1일, 평양과 원산 등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도 동시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시간에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운동이고, 우리 역사 뿐 아니라 세계사에 빛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3.1 운동이 세계사에 빛나는 것은 전국단위의 대규모 운동이 평화적으로 이뤄졌고, 당시 강대국에 시달렸던 나라들의 평화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1920년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도 3.1운동의 영향이니,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100전에 일어난 일이며, 경험했거나 기억하는 자가 더 이상 없는데,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가 그 날이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19년 3월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었던 그 함성이 있던 곳으로 한 번 떠나보겠습니다.

1919년 한반도

1905년, 강제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해 완전히 힘을 잃게 된 대한제국은 1910년 일방적인 위력으로 일본에 강제로 편입되고 합병됩니다. 이른바 경술국치이지요. 헌병경찰들이 우리 국민들을 총과 칼로 제압하는 무단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 십 만권의 우리 위헌전과 역사서 등이 불태워지고 언론이 통제되었습니다. 경제적 수탈도 심해져 만주나 시베리아 등으로 이주하는 국민들이 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 국가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족자결주의가 결의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민족지도자들은 3.1 만세운동을 준비하여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3.1운동에 어떻게 관여했는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 중 유일하게 체포되지 않고 상하이로 피하여 임시정부에 합류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해에 『한국독립운동역사략』이라는 자료집을 발행했습니다. 이 책 속에 3.1만세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뿌려졌던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전단지도 들어있습니다. 이 전단지에는 하루 세 번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을 하며,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말씀을 읽으라는 지침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일본인들에게 어떠한 폭력을 가하지 말며, 독립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평화적 시위를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서명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3.1운동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며 3.1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사실 한국기독교는 3.1운동 이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왔습니다. 평양대부흥운동이 그 중의 하나입니다. 한일합방 이전에 나라를 잃을까 하여 눈물과 통곡소리가 뒤섞인 기도들이 터져 나왔는데 그게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풍전등화와 같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아니 평양대부흥운동 이전부터, 즉 한국 땅에 처음 뿌리를 내릴 때부터 기독교는 애국심을 강조하는 종교로 인식되었습니다. 평안도에서 태어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7세 되던 해인 1894년에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나 곳곳에서 격전이

펼쳐지며 우리 국민들의 삶이 처참하게 바뀐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배움을 결심한 선생님은 서울 예수교학당(지금의 경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일반 과목과 함께 성경도 배우면서, 마침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 초기에는 애국심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런 분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애국심으로 세례를 받고 열심히 말씀을 배웠으며, 청년부활동과 전도활동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학교나 교회학교 등을 통해 한국교회는 그 초기부터 많은 민족지도자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습니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등을 인쇄하고 배포했던 기독교생들이나 기독교청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김마리아, 황에스더, 유관순 같은 수많은 기독교학생, 기독교여성청년들의 활약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공의와 평화의 하나님이며, 불의한 착취와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오래 참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에 이, 눈에는 눈으로 저항하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악에 맞서 견디지만, 그 구원이 역사的主인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먼저 기도하도록 배웠습니다. 하루 세 번 기도하고, 주일이면 금식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동시에 만세를 외쳤으니, 그들이 누구에게 외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라 없이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시민이라도 지금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습니다. 이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울부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녕 일본의 칼과 총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피난처 되시니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물결이 일어나 산위에 덮치되 두렵잖네”(70장). 이 찬송은 3.1 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은 물론 기독교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며, 창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가사내용으로 인해 일종의 항일가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완전삭제를 명한 찬송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곡을 암송해서 부르며 해방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게 하였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남유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이웃나라들을 침략하고 무참히 짓밟던 또 다른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립단 통고문>의 첫날 말씀인 이사야 10장에 나오는 앓수르, 즉 아시리아입니다. 앓수르 제국의 팽창으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거의 멸망에 이를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를 책망하십니다. 앓수르는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하게 식민지 백성을 다루었던 제국입니다. 강대국 앓수르로부터 살길을 얻고자 남유다는 조공을 바치고 앓수르의 우상을 섬기며 심지어 인신제사까지 드려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왕하 16). 작은 나라 유다는 남쪽의 오랜 강대국 애굽의 눈치도 봐야했습니다. 늘 어느 편에서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을사늑약과 경술국치를 겪으며 보여줬던 대한제국의 나약하고 비겁했던 우리의 몇몇 관원들의 모습과 어찌 이리도 닮았는지요?

그런 망국의 위기 속에서도 유다의 왕족과 귀족, 그리고 부유한 자들의 전횡은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영화만 추구하고, 고아와 과부의 것마저도 약탈했으며, 급기야 돈을 받고 재판하여 가난한 자들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뜨

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형제의 나라가 강대국의 말발굽에 짓밟힐 때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분열과 반목,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야말로 침략자의 기쁨이 되었겠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어쩌면 예고된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남유다를 크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를 책망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앗수르를 향해 진노를 쏟아내십니다. 당시 중동세계를 지배하던 최고의 제국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쓰임이 끝나면 불에 태워 사라지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입니까? 그것은 앗수르의 포악성과 교만 때문입니다. 약소국들의 경계를 허물고 세계를 제패하며 거대한 통일국가를 만들어가는 자신에게 앗수르는 스스로 큰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온 세계를 얻은 것은 자기 손의 힘이고, 자기 머리의 지혜라고 떠들며 자랑합니다. 백전백승! 겸손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가 가는 곳이 곧 길이 되고, 그의 말이 경계를 넘으면 어떤 나라의 땅이라도 앗수르가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앗수르는 그 힘과 권력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힘을 남용하고 공포를 조장하며 생명을 짓밟는데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였음을 알았다면, 전쟁에 이긴 후에도 그토록 교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대의 최강국 앗수르는 하나님의 예언 후 얼마 못가 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방 민족들을 모으기도하시고, 흠으시기도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권력과 힘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그 권력과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사용하는 자의 책임입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이 평화를 지키고 사람을 살리는데 쓰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오셨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인들은 월요일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이것이 일본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없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잔인한 폭력으로 우리를 다루었던 일본제국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믿고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3.1운동 백주년을 기념하며,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살피고 오직 힘의 근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봐야겠습니다. 우리 중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 강하고 능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 힘과 능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1세기 로마

이 땅의 그 무엇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강대국의 힘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신념의 문제나 누가 조직을 장악하느냐 등의 문제로 너무도 허무하게 신앙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고, 심하면 주변 전체를 큰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제국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 제국은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살던 곳입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부터 로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아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노예로 끌고 온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흘러 어떤 이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나 자유로운 여행도 가능했습니

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접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로마로 돌아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늘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바뀔 때마다 유대인에 대한 정책들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황제 한 사람의 손에서 유대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멸시와 편견, 그리고 이상한 신을 섬긴다는 조롱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거대한 제국에서 이 작은 민족은 언제나 따돌림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기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모두 로마에서 추방되었고(행 18:2), 로마의 교회는 남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 그 유명한 네로가 황제로 등극합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 남아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돌아온 유대 기독교인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누가 공동체의 리더인가에 대한 단순한 주도권 분쟁 뿐 아니라, 율법을 포함한 유대 전통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지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직 네로 황제의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고 게다가 유대인이 로마에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주었으니, 그들은 아마도 이 때가 가장 태평한 시절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옳은지에 대한 내부의 논쟁으로 그 자유와 평화의 시간을 축내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 중 하나는 이들의 분열을 막고 다시 화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율법에 매여 사는 유대 기독교인과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선의 기준을 따랐던 이방인 기독교인들과의 화합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교회를 지켰던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자신들의 목소리를 다시 찾으려던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의 논쟁은 그칠 줄 몰랐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렸습니다. 이제 곧 불어 닥칠 무서운 박해와 엄청난 환난의 징조들을 볼 수 있었다면, 서로 그렇게 분열하고 논쟁만 일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사도바울은 법에 얽매어 자유하지 못하는 율법주의나 육체의 자유를 따라 사는 반율법주의가 아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은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도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니, 예배가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율법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며 비난하고 정죄하니, 복음의 기쁜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만 좇거나 율법을 부인하는 것 모두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사람의 생각이나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몸(body)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오직 자신의 안락과 번영에만 몸과 마음이 향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좇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5). 성령은 오직 “생명”과 “평화”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좇는 인류는 대립과 소외의 상태로 들어가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며 평화를 깎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화를 향해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도 성령님과 함께 생명과 평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생명의 법이 다스립니다!

<독립단 통고문>의 마지막 날 성경본문 로마서 8장을 읽으며, 우리 믿음의 선인들은 성령 안에서 더욱 단합하였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그리고 다른 많은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전국적인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만세운동 이후 임시정부 수립과 독립군 지원에도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아마도 로마서 8장의 이 승리의 노래로 서로를 격려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38-39).

1세기 예루살렘

우리의 여행을 끝내기 전에 한 곳 더 들르겠습니다. 초막절 명절로 사람들이 북적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때, 한 눈에 알아본 사람들이 저들이(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죽이고자하는 사람이 아니냐고 수군댁니다. 예수님도 자신에 대한 소문을 모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살려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의한 세력은 어느 시대든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예까지 등장한 예수님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비장함이 엿보입니다. 평소에 서로 비난하고 경쟁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연합까지 했습니다. 점잖으신 분들이지만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는 노골적인 폭력을 사용합니다. 아랫사람들에게 당장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30대 초반의 예수님을 제어하려면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긴장감을 가진 사람들을 보냈어야 했을 겁니다. 금방이라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긴장감 속에서도, 예수님은 차분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33).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돌아갈 자”라는 선포식과 같았습니다. 그 위엄 때문에 감히 주님에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담력이 센 사람이라도 긴장한 남성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이렇게 차분하고 담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사람이라면 아마도 숨을 곳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 누가 나를 이끄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두려움 없이 그렇게 담대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말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는 갈릴리에서 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해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사명을 다한 후에 곧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리의 생명을 삼킬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또한 사명을 다하면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를 늘 기억한다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치게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때로는 일자리를, 때로는 우리의 명예를 흔들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와 타협하고 악의 세력에 굴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 가야 할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1 운동의 선봉에 섰던 우리 믿음의 선인들은 이러한 확고한 정체성 속에서 찬송하며 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음을 알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9년 한반도

<독립단 통고문>의 월요일과 토요일 말씀을 우리도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민족의 어두운 시대를 통과하며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악에 저항하려 했던 신앙의 선열들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이 목숨까지 내놓으며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이 조국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요? 그러나 부끄럽게도 해방 후 분단되었던 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념논쟁에 갇혀 분단된 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하려는 통일의 사명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온전히 기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계를 재패한 강대국들은 언제나 있어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강대국들의 틈 속에서 균형을외교를 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간섭과 견제는 3.1운동 당시와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줄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으면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보장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인한 진통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무제한으로 빠르게 전달되는 온갖 정보들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과 계층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큰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비롯한 나라사랑의 선봉에 서왔습니다. 이제 3.1운동 백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다시금 나라와 민족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근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의 해방과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던 신앙의 선인들을 기억하고 본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우리도 회복하고 계속 이어가야겠습니다. 육신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좇아 선한 일에 더욱 힘쓰고, 영적으로 추운겨울이 오더라도 환난이 덮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3.1운동을 기념한다는 것은,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사10:21). 3.1운동을 기념한다는 것은, 생명과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생명을 파괴하고 불화를 조장하는 모든 일들에 “아니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일구는 일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3.1운동을 기념하며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왔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확신하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